

형태부와 논항구조*:

스페인어의 어형성 규칙에 대하여

신 자 영

(서울대 강사, 스페인어학)

1. 들어가기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의 다양한 유형의 어휘형성 과정을 통하여 문법 내에서 형태부(Morfología)가 통사부(Sintaxis)와 어휘부(Lexicón)와 같은 다른 하위부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고찰한다. 어휘형성과 통사부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논항구조의 계승현상(Fenómeno de Herencia)은 많은 관심이 집중된 주제였는데, 이는 한 어휘 항목과 그 논항들의 통사적 실현에 관련한 어휘적 정보인 문법관계(Relaciones Gramaticales) 혹은 문법 기능(Funciones gramaticales)들이 어휘형성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 또는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므로, 어휘부와 통사부, 형태부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어휘 항목과 그 논항들의 의미적, 통사적 관계에 대한 어휘적 표시를 다루는 몇몇 이론을 비교 검토하는데,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기초하고 있는 의미역 이론(Teoría de Papeles temáticos)의 한계를

* 이 논문은 마드리드 아우또노마 대학에서의 박사학위 논문 (1997, 12)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

지적하면서, 어휘-의미적 정보와 어휘-통사적 정보를 각각 어휘부의 두 층위에서 다룰 수 있는 어휘개념구조(Estructura Léxico- Conceptual)와 논항구조(Estructura Argumental)가 계승현상의 연구에 있어서도 기본 개념으로 작용하여야 함을 주장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단어형성 과정의 관찰을 통하여 단어형성 규칙이 문법 내에서 적용되는 층위와 문법관계의 변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게 된다.

2. 문법관계의 표시

한 단어, 특히 술어 범주의 단어는 그 논항들에 대한 어휘의미적, 어휘 통사적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현대 언어학의 많은 이론들은 이러한 통사 구조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표시하며, 이러한 정보들은 이 단어들 이 문장을 형성할 때에 통사정보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많은 이론들은 의미적 정보가 통사구조의 결정에 가장 기본이 됨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의미역 이론이다.

의미역은 한 술어의 논항에 할당되는 의미유형으로 이는 연결규칙에 의하여 논항구조로 투사되어 그 술어의 통사구조를 결정한다. 논항구조에서는 논항들이 변항(variables)으로 표시되며 술어와의 관계에 따라 외부논항(argumento externo) 혹은 내부논항(argumento interno)으로 표시된다.¹⁾ 가령, 'descubrir'와 같은 동사는 다음과 같은 의미역과 논항구조에 의하여 표시된다고 할 수 있다.

- (1) 의미역 : descubrir < 행위자(agente), 대상(tema) >
 논항구조 : descubrir < x, y >

1)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의 개념은 Williams(1981)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한 술어는 논항을 취함에 있어서, 자신과 특정한 의미관계를 가지는 논항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술어와 논항의 의미관계를 포착하는 것이 의미역이라 할 수 있다. 지배-결속이론 (Teoría de la Rección y el Ligamiento)에서도 이러한 술어-논항 관계는 술어가 취하는 의미역 목록에 의하여 표시되었는데, 심층구조(Estructura-P)에서 표시되는 통사구조의 종단마디(nudos terminales)에 할당되어 그 의미역 유형이 통사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표시하였다. 이렇듯이 기존 이론에서의 의미역은 의미적이면서 동시에 통사적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의미역이론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통사구조로 투사되는 가장 최소한의 의미정보를 밝히고자 하는 어휘의미론의 기본 취지에 벗어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어휘이론의 발달에 따라 많은 비판을 받았다.

Levin & Rappaport (1986, 1988), Jackendoff (1987, 1990), Booij & Van Haaften (1988) 등은 술어-논항 관계의 어휘의미적특성과 통사적 특성이 각각 별개의 구조로 나타나야 함을 지적하였는데, 문법내에서 어휘부는 두 개의 독립적 층위로 이루어지며, 어휘의미적 정보는 어휘관념구조(ELC: Estructura Léxico-Conceptual)에 의하여 나타내지며, 연결규칙에 의하여 어휘-통사 층위의 논항구조(EA: Estructura Argumental)로 투사됨을 제시하였다.

어휘관념구조는 술어의 통사구조 투사에 필요한 정보를 논항의 의미유형에 의하여 표시하는 의미역이론과는 달리, 술어의 의미를 **CAUSAR**, **IR**, **ESTAR**, **SER** 등의 의미적 함수를 통하여 직접 기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논항들은 이러한 의미적 함수의 변항(variables)으로서 표시되며, 이러한 논항들은 어휘-통사층위에서 논항구조로 표시된다. 그러므로, 논항구조는 어휘의미 층에 통사적으로 관여하는 요소들의 구조적 표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어휘-통사 계층은 Hale & Keyser (1991)의 이론에서도 전제되어 있으며, L(éxico)-Sintaxis 층위로 불리운다.

3. 형태규칙 적용의 통사적 효과

이상에서 언급된 술어의 논항 선택에 대한 자질들이 형태규칙의 적용을 통하여 어떤 영향을 받는가는 이론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연구되어 왔다. Williams (1981a)의 경우 한 어휘항목의 논항구조와 의미역이 형태규칙의 적용으로 어떻게 변하는가에 중점을 두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존재함을 언급한다.

- (2) a. **E(x)**: '대상'(Tema)인 내부논항 x를 외부논항으로 바꾸는 규칙
- b. **E(∅)**: 외부논항 삭제 규칙
- c. **I(x)**: 외부논항을 내부논항으로 바꾸는 규칙

(2a)의 규칙적용의 예로 스페인어에서 접미사 '-ble'를 통하여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규칙을 들 수 있다. 'Juan y María **discuten** el asunto.' 'El asunto es **discutible**.'의 두 문장에서 비교할 수 있듯이 동사의 내부논항은 형태규칙 적용 후에 형용사 'discutible'의 내부 논항이 된다. (2b)의 예로는 수동태 규칙을 들 수 있는데, 'La ciudad **fue destruida** por los romanos.'의 문장에서 처럼 동사의 본래 외부논항이 수동동사의 조건적(opcional) 내부논항이 됨을 볼 수 있다. 사역화규칙(causativización)은 (2c)의 예로 들 수 있는데, 가령 'María es gorda.' 'La comida española engorda a María.'의 두 예에서 보듯이, 형용사의 '대상 외부논항'(argumento externo-Tema)이 사역화 규칙의 적용으로 동사의 내부논항이 되고, 동사의 새로운 '행위자 외부논항'(argumento externo-Agente)이 추가된다.

Booij (1992), Booij & van Haaften (1988), Zubizarreta (1986, 1987)등 어휘관념구조와 논항구조에 기초하고 있는 최근의 많은 이론에서는 형태규칙의 적용이 이 두 구조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형태 규칙을 통하여 유지되는 선택자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졌다. ‘논항구조의 계승’(Herencia de la Estructura Argumental)으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이 논문에서의 주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3. 1. 계승현상

형태부와 통사부, 어휘부 등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많은 연구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형태 규칙에 의하여 파생된 단어가 파생되기 이전의 형태, 즉, 어기(base léxica)와 논항의 의미역 자질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3), (4), (5)의 예에서 보듯이 스페인어 ‘-miento, -ción, -da’ 등의 접사로 도출되는 명사화 과정에서 파생 명사는 어기 동사의 논항에 해당하는 보어를 의무적으로 취한다.

- (3) a. El aburrimiento *(de María)
 a. ¹ Algo aburre a María.
 b. El arrepentimiento *(de Juan por sus pecados)
 b. ¹ Juan se arrepiente de sus pecados.
 c. El sentimiento *(de culpa de Juan)
 c. ¹ Juan siente culpa.
 d. El conocimiento *(de sí mismo de Juan)
 d. ¹ Juan se conoce a sí mismo.
 e. El movimiento *(de la rueda)
 e. ¹ Alguien mueve la rueda. La rueda se mueve.
 f. El descubrimiento *(de América por Colón)
 f. ¹ Colón descubrió América.
 (Bordelois (1993: 166))

- (4) a. La audición *(del concierto)
 a. ¹ Alguien oye el concierto.

- b. La percepción *(de la suavidad de la tela)
 - b.´ Se percibe la suavidad de la tela.
 - c. La destrucción *(de la ciudad por los bárbaros)
 - c.´ Los bárbaros destruyen la ciudad.
 - d. La redacción *(del artículo por Juan)
 - d.´ Juan redacta el artículo.
- (Demonte 1991: 45-46)

- (5) a. La llegada *(de Juan al aeropuerto)
- a.´ Juan llega al aeropuerto.
- b. La mirada *(de Juan a las estrellas)
- b.´ Juan mira las estrellas.
- c. La salida *(de Juan del país)
- c.´ Juan sale del país.²⁾

이러한 현상들은 형태 규칙의 적용 받은 후에도 핵과 (여기서는 어기의 동사) 논항의 통사구조가 유지되는 경우이다. 이는 마치 어형성규칙이 투사원리(Principio de proyección)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암시하는데, 투사원리에 의하면 통사규칙의 적용은 어휘적 정보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한 단어의 어휘적 정보는 통사부를 거치는 동안 불변하며, 모든 통사계층으로 투사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휘규칙만이 어휘적 정보를, 가령 논항구

2) -miento, -ción, -da 로 파생된 명사가 의무적 보어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 명사는 결과 혹은 객체의 의미를 가지며, 어떤 행위나 과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1) a. La salida *(del tren) se retrasó un poco. (행위: acción)
- b. la puerta de salida *(de la gente) (결과: resultado)
- c. La construcción*(del puente) se realizó en dos meses. (행위: acción).
- d. Esas construcciones *(del puente) son muy altas. (결과: resultado)

조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함축한다. 그렇다면, (3), (4), (5)에 주어진 예들은 단어형성규칙이 통사부에서 어휘정보의 통사적 투사에 관여하는 투사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암시하게 되는데, 단어형성규칙이 어휘부에서만 일어난다고 할 때에 이론적 모순이 생기게 된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단어형성규칙이 어휘부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Baker (1988), Fabb (1984), Sproat (1985), Walinska (1986), Petsesky (1991) 등에 의하여 주장된 바와 같이, 통사부에서 적용되는 단어형성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투사규칙이 어휘부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파생 명사와 어기동사의 보어선택자질에 있어서 공유점은 완전한 통사적 자질로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어휘적 자질, 즉 의미역이나 논항구조의 공통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Rappaport (1983), Amritavali (1980), Borer (1983), Randall (1988), Booij & Van Haaften (1988), Hoekstra (1986) 등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즉, 동사의 보어 선택에 대한 자질이 파생명사에서 계승되었다는 사실은 이 보어와 동사와의 의미역관계, 혹은 논항구조가 유지되었음을 의미하며, 모든 통사적 자질이 계승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보어의 통사적 실현은 파생명사의 경우 전치사구(Sintagma Preposicional)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투사원리가 모든 통사 층위에서 하위범주화(subcategorización)의 유지에 관여한다고 할 때, (3), (4), (5)에서 제시된 파생명사들은 어기 동사와 하위범주화를 공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투사원리를 준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투사원리가 어휘부에서 준수된다는 가능성도 배제된다.

이러한 지적은 계승현상을 통사적 하위범주화의 측면이 아닌, 어휘부 내에서 논항구조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따라서 '-miento, -ción, -da' 등의 접미사로 이루어지는 명사화 파생은 어기동

사의 의미적 선택자질을 유지할 뿐, 격할당이나 하위범주화, 문법범주 등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어휘규칙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통사규칙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3. 2. 여러 유형의 계승현상

이금까지 우리는 동사와 같은 논항구조를 가지는 행위의 명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논항구조가 계승되는 예는 형용사로부터 명사를 도출하는 규칙의 적용에서도 관찰된다.

- (6) a. La estabilidad del mundo
- a.' El mundo es estable.
- b. La espontaneidad de su comportamiento
- b.' Su comportamiento es espontáneo.
- c. La seriedad de la situación política
- c.' La situación política es seria.
- d. La ambigüedad del mensaje
- d.' El mensaje es ambiguo.
- e. La crueledad de este hombre
- e.' Este hombre es cruel.
- f. La seguridad de los ciudadanos
- f.' Los ciudadanos son/están seguros.
- g. La gramaticalidad de esta frase
- g.' Esta frase es gramatical.

(6)에서 제시된 명사는 의미적으로 객체를 지시하지 않으며, 어기 형용사의 상태나 자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형용사의 슬어 논항 관계는 파생명사에서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어기의 선택자질이 부분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

기의 논항 중 일부만이 계승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논항이 병합(incorporación), 억제(supresión) 혹은 추가(adición)된다. 예를 들어, '-dor, -nte' 등의 명사화 접사는 어기동사의 외부논항을 병합하여, 동사의 주어에 해당하는 외부논항의 의미역과 그 밖의 의미적 자질을 접사 자신이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 접사들은 외부논항을 가지는 동사 즉, 타동사(7a)와 비능격 동사(7b)에만 첨가될 수 있으며, 능격 혹은 비대격 동사(7c)에는 첨가될 수 없다. 타동사를 어기로 하는 경우 내부논항은 계승된다.

- (7) a. los secuestradores del avión
- b. el esquiador, el corredor
- c. *el cansador, *el llegador

이러한 류의 명사는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의 특정한 행위의 수행 과정 중에 있는 객체를 의미한다. 즉, 'nadador'는 수영을 하고 있는 혹은 습관적으로 수영을 하는 누군가를 의미하며, 'ganador'는 특정한 경기에서 이기고 있는 혹은 이긴 사람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그 의미는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어기동사의 사건, 행위의 의미가 파생동사에서도 살아있는 경우이다.

또 다른 계승의 유형은 파생접사가 어기에 대한 기능소(operator)로서 작용하는 경우로, 어기의 외부논항의 실현을 억제하고, 내부논항을 외부논항으로 만드는 경우이다. 형용사화 접사 'ble'와 수동태 형태소 '-do'가 이 유형에 속한다. '-ble'의 경우 'V될 수 있는' (que puede ser V-do)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동사 내부논항의 외부화에 관여함으로 (8)에서 처럼 반드시 내부논항을 가지는 동사에만 첨가될 수 있다.

- (8) a. Este papel es plegable (*por los niños).
- a. Este papel se puede plegar.
- b. Este asunto es discutible (*por la gente).

- b. ' Este asunto se puede discutir.
- c. Juan es admirable (*por sus alumnos).
- c. ' Juan es digno de ser admirado.

(8)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ble'로 파생되는 형용사에서 동사의 내부논항은 형용사의 외부논항이 되며, 동사의 외부논항은 삭제된다. 내부논항의 외부화라는 점에서는 수동태 규칙과 공통점이 있으나, 동사의 외부논항이 수동태에서는 전치사구로서 존재하는데 비하여 '-ble'로 파생되는 형용사에서는 완전히 삭제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접미사는 새로운 논항을 첨가하기도 하는데, (9)에서 제시하고 있는 '-izar, -ificar, en- -ar, a- -ar, en- -ecer' 등으로 파생되는 사역동사의 경우이다.

- (9) a. Los nuevos gastos me han empobrecido.
- b. No bebo ginebra, porque me emborracha.
- c. La tila te tranquilizará.
- d. Este clima puede agravar la enfermedad.
- e. La baja temperatura ha solidificado el agua.

(9)의 사역동사들에서, 접사는 외부논항을 도입하고, 기존의 형용사의 외부논항은 파생동사의 내부논항으로 바뀐다. 동사는 사역주가 특정 객체에게 형용사에 의하여 함의되는 속성을 가지도록 하는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가령, (9a)에서 'empobrecer'동사의 외부논항('los nuevos gastos')은 접사 '-ecer'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내부논항('me')은 어기형용사('pobre')의 외부논항에 해당된다.

이처럼 형태규칙의 적용이 논항구조에 대한 다양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접사에 의하여 도출되는 단어의 의미적 자질과 통사적 범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³⁾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ble'에 의한 파생

은 어기동사의 행위와 관련된 내부논항의 잠재적 능력에 대한 자질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동사의 행위자 주어는 어떤 형용사와도 양립할 수 없으므로 사라지게 된다. 모든 형용사는 최소한 한 개의 외부논항을 가져야 하므로, 동사의 내부논항은 외부논항이 되는 것이다.

사역화 과정은 파생접사의 의미적, 통사적 자질이 파생어에서의 논항관계를 결정한다는 또다른 논의를 제공한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사역접사는 대상의 의미역을 가지는 특정 객체가 행위자 사역주에 의하여 형용사에 의하여 함의되는 자질을 가지도록 한다. 이때 어기 형용사의 외부논항은 동사의 내부논항이 되는데, 한 동사가 두 개의 외부논항을 가질 수 없다는 제약 때문이며, 행위자 혹은 사역주 논항이 통사적으로 대상 논항보다도 구조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9)에서의 외부논항의 내부화는 사역화라는 의미적 과정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바에 의하면 형태규칙의 적용에서 내부화(interiorización), 외부화(exteriorización) 등 논항구조의 변화는 각각 별개의 과정이 아닌, 단어형성규칙에서 파생접사가 도출하는 단어의 의미적 통사적 특징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4. 두 유형의 형태론적 과정

앞 장에서 살펴본 어기의 논항이 계승되는 형태적 과정은 규칙적이며 생산적이다. 그러나 모든 접사가 모든 경우에 논항의 계승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10)에서 우리는 같은 접사에 의하여 도출되면서도 어기의 논항을 계승하는 파생명사와(10, a-d), 논항을 계승하지 않는 명사(10, a' -d')를 생성하는 두 예의 대조를 볼 수 있다.

3) 이러한 견해는 Levin y Rappaport (1986: 647), Booij y Van Haften (1988: 34), Hoekstra y Van der Putten (1988), Zubizarreta (1987), Lieber (1992) 등에 근거한다.

- (10) a. El enterramiento del cadáver tuvo lugar a las cinco de la tarde.
a'. Bajo las calles de la ciudad hay enterramientos de antiguos cristianos.
b. El recibimiento del presidente de los Estados Unidos tuvo lugar por la tarde.
b'. Me sentí muy agradecido por el recibimiento que me habían preparado.
c. La destrucción del edificio más antiguo de la ciudad se produjo a causa de un terremoto.
c'. Vimos la destrucción que la guerra había causado en su ciudad.
d. La terminación de las obras está prevista para el mes próximo.
d'. En la terminación de la película el héroe salva a sus amigos.

이러한 대조는 '-da, -dad, -dor, -ante' 등의 접사로 파생되는 경우에도 관찰된다. (11)의 예에서 보듯이, 'bebida, comida, vista' 등의 파생 명사는 어기 동사의 논항을 취할 수 없다. 이 예들은 (5)에서 제시된 논항을 계승하는 예 'la llegada de Juan al aeropuerto'와 대조된다.

- (11) a. *La bebida de la leche por Juan
b. *La comida del pescado por Juan
c. *La vista de la ciudad por Juan
(Bordelois (1993: 166))

(12)는 '-dad' 에 의하여 파생된 명사가 어기 형용사의 논항을 계승하

지 않는 예이며, (6)과 대조된다.

(12) a. La profundidad del río aumenta en esta zona.

b. La enfermedad de los árboles ha sido tratada con un insecticida.

‘profundidad del río’와 ‘enfermedad de los árboles’에서 나타나는 전치사구는 엄격한 의미로 형용사나 명사의 의무적 논항으로 볼 수 없다.

Levin & Rappaport (1992)는 여기 동사의 보어를 계승하는 파생명사와 계승하지 않는 파생명사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 두 종류의 파생명사의 정확한 구분은 의미역 이론의 테두리 안에서는 불가능하며, 여기동사의 의미 해석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논항 계승의 경우, 동사의 사건적(eventivo) 해석이 가능한데 이는 (10)의 예에서 보이는 두 종류 파생명사의 의미적 비교를 통하여 명백해진다. (10 a-d)의 명사는 사건적 해석이 가능하며, 따라서 논항을 취할 수 있다. 반면에 (10a’ -d’)의 명사들은 사건적 해석이 불가능하며, 논항을 취할 수 없다. 가령, (10c)에서 건물의 파괴(destrucción del edificio)는 실제 일어난, 특정한 사건을 의미하며 (10c’)에서의 파괴(destrucción)는 파괴의 행위 결과로 생산되는 특정 객체를 지시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이 두 종류의 명사는 Grimshaw (1986, 1990), Anderson (1983), Safir (1987), Zubizarreta (1987)등에서 ‘과정의 명사’(nominales de proceso)와 ‘결과의 명사’(nominales de efecto)로 불리어 지기도 한다. 여기의 논항을 계승하는 명사의 경우 규칙적이고 투명한 의미적 해석을 받는데, 여기와 파생접사의 어휘관념구조로부터 새로운 의미요소의 첨가나 삭제 없이 규칙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반면에 결과의 명사는 어휘화(lexicalizado)된 경우가 많아서 여기와 접사의 의미적 관계를 명시하기가 쉽지 않다. ‘-miento’와 ‘-ción’에 의하여 파생되는 ‘enterramiento, pensamiento, destrucción, construcción,

publicación, creación' 등의 명사는 동사의 행위에 의하여 생산된 결과적 산물 자체를 지시한다. 'ayuntamiento, aposentamiento'와 같은 장소의 명사나 'medicación'와 같이 특정 효과를 생산하기 위한 객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의미적 해석과 논항계승의 관계는 '-dor, -nte'로 끝나는 명사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los secuestradores del avión', 'los vencedores del partido final', 'el donante de sangre'와 같은 논항계승 명사의 경우 실제 행위의 실현을 반드시 포함한다. 즉, '비행기를 실제로 납치하고 있는/ 납치했던 사람', 혹은 '경기에 이긴 사람', '헌혈을 하는/한 사람'을 각각 의미하므로, 특정 시기에 특정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비능격 동사(verbos inergativos)에서 '-nte' 접사로 도출되는 명사인 'asaltante, caminante, manifestante, concursante, demandante, suplente, solicitante' 등의 경우에도 특정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을 지시한다. 논항구조를 계승하는 '-dor, -nte'로 도출되는 명사의 경우 (13)과 같은 어휘관념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3) **ELC** de los nominales eventivos en -dor y -nte

: x es una persona, tal que x **PREDICA** y, donde x **PREDICA** y es la **ELC** del verbo base.

반면에 'cobrador, compositor, diseñador, cantante, comerciante, di bujante, sirviente, traficante' 등과 같은 직업명사의 경우 특정행위의 구체적 실현이 아닌 'cobrar, diseñar, cantar' 등의 행위를 습관적 혹은 직업적으로 실현하는 사람을 지시한다. 이들 직업명사의 경우, 가령 그 행위를 한 번도 제대로 실현해보지 않은 사람, 즉 디자이너이라는 직업물 가지면서도 한 번도 디자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Levin & Rapaport (1992)에 의하여 비 사건명사(no-eventivos)라고 명명되기도 하였다. 'hablador, bebedor, madrugador, murmurador, fuma

dor' 등의 명사도 특정 행위의 습관적, 반복적 실현을 의미하므로 비사건 명사로 분류될 수 있다. 가령, 수다쟁이('hablador')의 경우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시기의 말하는 행위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도구의 명사인 'despertador, recogedor, lavadora, sembradora, destornillador, vaporizador, aspiradora, acelerador, amortiguador, borrador, colador, disparador, quemador, secador' 등도 논항계승을 하지 않는 비사건명사로 분류될 수 있다. 특정한 화학적 효과를 생산할 수 있는 명사를 의미하는 'calmante, carburante, coagulante, colorante, desinfectante, fertilizante, lubricante, picante, purgante, reconstituyente, sedante, tranquilizante' 등도 도구의 명사로 분류되어 (14)와 같은 어휘적 표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4) **ELC** de los nominales de instrumentos en -dor y -nte

: x es un instrumento, tal que x es destinado a P, donde P es el predicado de la **ELC** del verbo base.

지금까지 우리는 어기의 선택자질에 대하여 서로 구분되는 두 유형의 파생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어기의 관념구조를 계승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어기의 관념구조를 계승하지 않는 경우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유형은 어형성규칙이 어휘부 내에서 어떤 층위에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생성됨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첫 번째 유형의 단어들은 어휘-통사 층위인 논항구조의 층위에서 파생되며, 두 번째 유형은 어휘-의미 층위인 관념구조 층위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단어형성이 관념구조와 논항구조의 두 층위에서 일어날 수 있음은 이미 Booji (1992), Marantz (1984, 1988), Zubizarreta (1987) 등에 의하여 주장된 바 있으며, 특히 Marantz (1984, 1988)은 사역화와 같은 파생 과정은 적용되는 계층에 따라 통사적, 어휘적으로 다른 효과를 일으킨다고 언급하였다. '-ble, -ificar, -izar' 등의 접사에 의한 파생에 대한 우리

의 연구는 어기의 어휘적 자질이 어떤식으로 영향받는가, 즉, 관념구조가 유지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층위에서 도출됨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Marantz와 공유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기의 어휘관념구조와 논항구조에 영향을 주는 파생의 경우 어휘-의미 계층에서 (즉, 관념구조의 계층)에서 도출되며, 어기의 의미적 자질은 유지하고 통사적 투사만을 변화시킬 경우에 어휘-통사 계층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다.

파생된 단어에서 어기의 논항이 계승된다는 것은 파생어의 논항의 의미역이 어기에 의하여 선택됨을 의미한다. 이는 접사가 어기의 관념구조에 개입하여 새로운 논항자리를 삭제나 추가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관념구조를 더할 때에 가능하다.⁴⁾ 관념구조가 계승되고 나서 논항들의 통사적 실현은 파생된 단어의 논항구조에 전체적으로 일치하여, 내부논항의 외부화, 외부논항의 내부화, 논항의 삭제 등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다음 두 장에서는 어기의 관념구조를 계승하는 파생어는 어휘-통사부, 즉 논항구조의 층위에서 도출된다는 주장을 뒷바침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논의를 펴기로 하겠다.

4. 1. 접사의 선택계약 (Las restricciones seleccionales del afijo)

형태적 파생이 어휘부의 서로 다른 층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각각의 층위에서 일어나는 파생에 대한 제약에 대한 일반화가 각각 다른식으로, 즉 어휘관념구조 혹은 논항구조로 기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논의를 찾을 수 있다. 파생접미사가 단어내부구조에서 통사적 핵(núcleo)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선택하는 보어인 어기에 대한 선택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계약은 이론에 따라 여러 틀 안에서 기술되었는데, 하위범주화(subcategorización) (cf. Lieber (1992), Borer (1990)), 의미역(Re d Temática) (cf. Roeper (1987)), 어휘관념구조 (cf. Booij (1992), Lieb

4) 논항의 의미역선택(La selección semántica o temática)의 개념은 Higginbotham (1985) y Di Sciullo (1990)에 의하여 제시된 Theta Identification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er(1992)) 혹은 논항구조(Booij (1992), Zubizarreta (1987), Fabb (1984), Keyser & Roeper (1984), Levin & Rappaport (1988)) 등이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어휘관념구조와 논항구조를 어휘표시의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으로 규정하므로, 접사의 선택제약 또한 이 두 개념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Booij (1992)와 Zubizarreta (1987)에 의하면, 접사의 어기에 대한 제약은 파생이 일어나는 층위에서 가능한 구조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형태적 파생과정이 어휘-통사 층위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에, 이 파생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나 제약에 대한 일반화는 외부논항, 내부논항 등의 논항구조의 개념을 빌어 기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논항을 계승하는 파생어가 논항구조 층위에서 도출된다고 제시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파생과정에서 접미사의 어기에 대한 선택제약은 모두 논항구조를 통하여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몇 가지 예를 통하여 증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da'로 파생되는 명사 중 어기의 논항을 계승하는 경우에, 동사의 선택에 있어서 특정한 의미역을 가지거나 특정 의미부류의 것이어야만 하는 제약은 없으며, 그 대신 내부논항만을 가지는 비대격 동사(*verbos inacusativos*)이어야 한다는 제약만이 존재한다. 이는 (5)에서 제시한 'salida de Juan del país' 등과 같은 구조를 허용하는 동사파생명사들은 'vuelta, caída, partida, bajada, subida' 등과 같이 비대격 동사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11)에서 제시한 'bebida, comida, vista'와 같은 논항계승을 하지 않는 명사의 경우는 동사 논항구조상의 제약을 보이지 않으므로 타동사나 비능격동사(*verbos inergativos*)등 어떤 유형의 동사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ble'에 의하여 파생되는 형용사에서도 관찰되는데, 논항계승의 경우에 파생 형용사의 외부논항은 동사 내부논항의 외부화(*exteriorización*)를 포함하므로, 반드시 타동사, 즉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을 동시에 가지는 동사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ble’ 로 파생되는 형용사 중 ‘estable, mudable, perdurable, variable, amable, agradable, abordable, apreciable, sonable, razonable, entrañable, notable, impermeable, sensible, recreable’와 같이 논항계승과 무관한 형태들에서는 어기 동사에 대한 이러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Fabb (1984), Keyser & Roeper (1984), Levin & Rapaport (1988) 등은 영어의 명사화 접사인 ‘-er’ 의 어기동사에 대한 제약도 논항구조를 통하여 표시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즉, 접사 ‘-er’는 타동사와 비능격 동사 등 외부논항을 취하는 동사만을 어기로 취하여 논항계승의 명사를 만든다. 이와 유사하게 스페인어의 명사화 접사 ‘-dor, -nte’ 등은 어기 동사의 의미적 자질과는 무관하게 외부논항을 가지는 동사를 취하여 명사를 도출하는데, 동사의 외부논항은 의미적으로 행위자, 경험주(experimentante), 도구(instrumento) 등 어떤 의미역을 가져도 무관하다. (15)에서 제시한 예에서 접미사 ‘-nte’와 ‘-dor’가 행위자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의미역을 포함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 (15) a. amante de la música clásica
 b. el admirador de Beethoven
 c. el poseedor de la Visa
 d. los residentes en Madrid
 e. los creyentes en Dios
 f. los ignorantes de la verdad

이 유형의 명사파생은 ‘aspirante, creyente, ignorante, hablante, pretendiente, simpatizante, vidente’와 같이 상태동사(verbos estativos)로부터도 파생 가능하며, 행위나 사건동사(verbos eventivos)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파생접사의 선택제약은 어기의 논항계승을 허용하는

단어의 파생이 논항구조 층위에서 수행된다는 주장에 대한 명백한 논의를 제공한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의미역할당의 확실성 가설 (La Hipótesis de la Uniformidad en la Asignación de Papeles Temáticos (UAPT))의 고찰을 통하여 논항구조 층위에서의 형태적 파생에 대한 또다른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4. 2. 의미역할당의 확실성 가설(La Hipótesis de la Uniformidad en la Asignación de Papeles Temáticos (UAPT))과 형태부

어휘부와 형태부에 관련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어휘항목들의 어휘-의미적, 어휘-통사적, 통사적, 형태적 등 여러 자질들을 어떻게 문법내에 표시하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Baker(1988)가 제안한 의미역할당의 확실성 가설(La Hipótesis de la Uniformidad en la Asignación de Papeles Temáticos (UAPT))은 의미역으로 나타나는 어휘의미구조와 통사구조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관찰을 하고 있으며, 많은 어휘론, 통사론 모델에서 전제되고 있다. 이 가설은 어휘항목들 간에 같은 의미역 관계가 있을 경우 심층구조(Estructura-P)에서 같은 통사 구조에 의하여 표시된다는 것을 주장하여, 어휘부, 특히 의미역 관계와 통사구조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가령 앞에서 (3), (4), (5)에서 제시한 동사파생명사에서 어기 동사와 논항들의 의미역 관계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심층 구조에서 이들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심층구조에서 동사는 파생명사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그 논항들에게 의미역을 할당할 수 있는 독자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명사 파생의 형태 규칙의 적용은 의미역이 할당된 후에 일어나므로 통사부에서 행해져야만 한다.

의미역할당의 확실성 가설은 Fabb (1984), Baker (1988), Hale & Keyser (1993), Halle & Marantz (1993) 등 많은 연구에서 전제되어 왔는데, 특히 통사부에서의 형태적 파생을 강조하는 Fabb (1984), Baker

(1988)등에서 의미역관계와 통사구조의 직접적 관련에 관하여 강력한 논의의 도구로 쓰여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가설은 파생명사의 어기인 동사들처럼 비록 독자적인 요소가 아니고 단어의 일부라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의미역을 할당하고 받을 수 있는 요소라면 통사구조상 독립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의미역 할당자인 동사는 심층구조에서 핵의 위치에 나타낼 수 있으며, 그 논항들은 핵의 최대확장범위(*proyección máxima*) 내에서 표시된다. 이 구조로부터, 핵이동(*movimiento de núcleo*)을 통하여 단어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어 형성은 통사부에서의 단어형성과정으로 간주된다.

통사적 단어형성의 주장과 이에 대한 근거인 의미역할당의 확일성 가설은 어휘의미표시의 기본 단위로서 의미역이론에 기초하며, 어휘의미적 정보가 통사적으로 투사되는 계층을 통사부의 심층구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이 논문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의미역이론은 문법내에서 통사적 구조 결정에 필요한 근본적 의미 단위로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의미역의 이중적 기능을 어휘관념구조와 논항구조가 대신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논항구조는 어휘의미적 정보가 통사부로 투사되기 이전에 어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통사적 층위이며 이로부터 통사부의 심층구조가 도출된다.⁵⁾

그렇다면, 의미역할당의 확일성 가설이 어휘의미적 구조와 통사적 구조간의 관계를 명시한다고 할 때에, 어휘-통사 층위인 논항구조의 존재는 확일성 가설을 의미역과 심층구조의 관계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휘관념구조와 논항구조 관계의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준다. 결과적으로, Baker (1988), Fabb (1984) 등에 의하여 통사적 파생으로 여겨졌던 몇몇 과정들은 어휘부 내의 통사 층위인 논항구조 층위에서의 형태적 과정으로서 설명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어기의 관념구조와 논항를 계승하는 파생이 논항구조 층위에서 수행된다는

5) Hale & Keyser (1993)는 논항구조가 완전한 통사구조로서 표시될 수도 있음을 어휘관계구조(*Estructura Léxico-Relacional*)를 통하여 주장한다.

제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마무리

지금까지 연구에서 우리는 형태적으로 파생된 단어에서 어기의 논항 선택 자질이 어떻게 변하며, 이를 통하여 어휘부, 형태부, 통사부의 관계에 대한 제 문제들을 고려하였다. 우선 한 어휘 항목과 그 논항들의 의미적, 통사적 관계에 대한 어휘적 표시를 다루는 몇몇 이론을 비교 검토하고,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기초하고 있는 의미역 이론 (Teoría de Papeles temáticos)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어휘-의미적 정보와 어휘-통사적 정보를 각각 어휘부의 두 층위에서 다룰 수 있는 어휘관념구조 (Estructura Léxico-Conceptual)와 논항구조(Estructura Argumental)가 계승현상의 연구에 있어서도 기본 개념으로 작용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스페인어에서 다양한 유형의 어휘형성 규칙을 살펴보면, '-miento, -ción, -dor, -da' 등의 접미사에 의하여 동사로부터 파생되는 명사형과, 접미사 '-dad'에 의하여 형용사로부터 파생된 명사형, 동사로부터 파생된 '-able' 형용사, 또한 형용사로부터 'em- -ecer, a- -ar, -izar, -ificar' 등 다양한 유형의 접사에 의하여 파생된 사역동사가 그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어기의 논항구조가 어형성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다양성은 별개의 규칙의 적용 결과가 아니며, 일괄된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3장에서는 논항구조의 계승은 위에서 언급한 접사로 파생되는 모든 단어들에서 관찰되는 것이 아니며, 의미적 조건, 즉, 어휘관념구조의 계승이라는 조건하에만 일어날 수 있음을 밝히고, 어휘형성규칙의 적용은 어휘-의미 층위와 어휘-통사 층위, 즉, 어휘부의 두 층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어휘형성규칙 적용에 있어서 선택제약 조건들과 Baker(1988)의 의미역할당의 확일성 가설(La Hipótesis en la

Uniformidad de la Asignación de Papeles Temáticos)에 근거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통사부와 형태부의 상호 작용으로 간주되었던 몇몇 현상들을, 여러 어휘형성과정을 어휘이론과 어휘자질의 통사적 투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어휘부와 형태부의 관계로 재규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Baker, M., "The mirror Principle and morphosyntactic explanation", *Linguistic Inquiry* 16, 1985.
- Baker, M.,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88.
- _____, "Morphology and Syntax: an interlocking independence", in *Morphology and Modularity*, Foris, Dordrecht, 1988.
- Booij, G., "Form and meaning in morphology: the case of Dutch agentive nouns", *Linguistics* 24, 1986.
- _____, "Morphology, semantics and argument structure", in I. G. Roca (ed.), *Thematic Structure. Its role in Grammar*, Foris, Berlin/ New York, 1992.
- _____, & van Haaften, T., "The external syntax of derived words: evidence from Dutch", *Yearbook of Morphology* 1, Kluwer, Dordrecht, 1988.
- Bordelois, I., "Afijación y estructura temática: -Da en español", en S. Varela (ed.), *La formación de palabras*, Taurus, Madrid, 1993.
- Chomsky, N., *Aspects of theory of syntax*, MIT Press, Cambridge, Mass1965.

- _____,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1981.
- Demonte, V., “Sobre agentes, experimentantes y objetos afectados. El dilema del lexicalista”, en *Detrás de la palabra. Estudios de gramática del español*, Alianza Editorial, Madrid, 1991.
- Fabb, N., “Syntactic Affixation”, Tesis doctoral, MIT, 1984.
- Grimshaw, J., *Argument structure*, MIT Press, Cambridge, Mass, 1992.
- Hale, K. & Keyser, S.(eds.), “On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 of syntactic relations”, en K. Hale & S.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MIT Press, Cambridge, 1993.
- Levin, B. & Rappaport M., “The formation of adjectival passives”, *Linguistic Inquiry* 17, 1986.
- _____, “Non event -er nominals: a probe into argument structure”, *Linguistics* 26, 1988.
- Lieber, R., *Deconstructing Morph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92.
- Marantz, A., *On the nature of Grammatical Relations*, MIT Press, Cambridge, Mass, 1984.
- Pesetsky, D., “Binding problems with experiencer verbs”, *Linguistic Inquiry* 18, 1987.
- _____, *Zero syntax: Experiencer and cascades*, MIT Press, Cambridge, Mass, 1994.
- Randall, J. H., “Thematic Structure and Inheritance”, *Quaderni di Semantica* 5, 1984,
- _____, “Inheritance”, *Syntax and Semantics*, vol. 21, 1988.

- Rappaport, M., "On the nature of Derived Nominals", en L. Levin et. al(eds.), *Papers in Lexical Funtional Grammar*,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Bloomington, Ind, 1983.
- Safir, K., "The syntactic projection of lexical thematic structur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5, 1987.
- Shin, J., *Morfología y Modularidad: la formación de los verbos causativos en español*. Tesis doctoral, UAM, 1997.
- Spencer, A., *Morphological theory*, Cambridge/Oxford, Blackwell, 1991.
- Varela, S(ed.), *La formación de palabras*, Taurus, Madrid, 1993.
- Walinska de Hackbeil, H., *The roots of Phrase structure: The syntactic basis of English Morphology*, Tesis doctoral, University of Washington, 1986.
- Wasow, T., "Transformation and the lexicon", in P. Culicover et. al(eds.), *Formal syntax*, Academic Press, New York, 1977.
- Zubizarreta, M. L., *The levels of representation in the lexicon and in the syntax*, Foris, Dordrecht, 1987.

【Resumen】

Morfología y estructura argumental:
la formación de palabras en español

Shin, Ja-Young

Departamento de la lengua y literatura española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Este estudio se ha ocupado del fenómeno de la herencia, el cual se hace patente en los casos en que los argumentos semánticamente seleccionados por la base son seleccionados, a su vez, por la palabra derivada. Hemos intentado explicar los distintos efectos de la herencia como exteriorización, interiorización, incorporación, supresión o adición de argumentos, procesos todos ellos que no se consideran resultado de la aplicación de diferentes reglas que afectan la estructura argumental de los morfemas sino como consecuencia de determinadas operaciones semánticas que son reguladas por las propiedades semánticas o sintácticas relacionadas con la categoría de los afijos.

Asimismo, hemos mostrado, siguiendo a Hoekstra & Van der Putten (1988), Levin & Rappaport (1992), Lieber (1992), entre otros, la relevancia de la interpretación semántica en la capacidad del afijo para heredar argumentos; es decir, la herencia de la estructura argumental en las palabras derivadas no se debe a las propiedades sintácticas del sufijo en cuestión, sino que está determinada por el significado de las palabras derivadas, compartido por la base léxica. La herencia de la **ELC** del morfema predicativo corresponde a la

estructura conceptual del evento que incluye el predicado, que es una función semántica que define la relación semántica entre sus argumentos. Así, la herencia de la **ELC** del verbo en la derivación deverbal da lugar a la interpretación eventiva, y en consecuencia, a la herencia de los argumentos del verbo. Por el contrario, en las derivaciones en las cuales solamente se hereda el predicado de la **ELC** del verbo, no está implicada la interpretación eventiva y no se heredan lógicamente los argumentos del verbo en la palabra derivada.

Hemos defendido que los distintos efectos de los procesos morfológicos en las propiedades de selección de argumentos sintácticos se producen dependiendo del nivel donde se realizan tales procesos. Los procesos morfológicos en los cuales los morfemas de la base mantienen su capacidad de seleccionar sus argumentos sintácticos se encuentran en el nivel de la estructura argumental; en cambio, los procesos morfológicos que tienen lugar en el nivel de la **ELC** no permiten que las bases léxicas proyecten sus propias estructuras argumentales.

Nuestra propuesta se apoya en el hecho de que los afijos de cada tipo de operación tienen distintas restricciones seleccionales; es decir, los afijos que participan en el primer tipo de operación seleccionan morfemas dotados de ciertas estructuras argumentales, mientras que los afijos del segundo tipo exigen ciertas condiciones en la **ELC** de los morfemas que seleccionan. Otro argumento a favor de que los procesos morfológicos en los cuales cada morfema mantiene su **ELC** y la relación semántica de predicado-argumento tiene lugar en el nivel de la estructura argumental se basa en la **Hipótesis de la Uniformidad en la Asignación de Papeles**

Temáticos (UAPT). Siguiendo a Hale & Keyser (1993), consideramos que tal hipótesis concierne no sólo a la proyección directa de las propiedades léxico-semánticas en las estructuras sintácticas, sino también a la proyección de tales propiedades semánticas en las estructuras argumentales. Consecuentemente, en los procesos morfológicos en los cuales cada morfema mantiene la relación semántica de predicado y argumento, tales relaciones entre el predicado y sus argumentos deben representarse en el nivel de la estructura argumental a través de estructuras sintácticas del tipo de la **ELR** de Hale & Keyser (1993). En tal caso, las reglas derivativas pueden operar solamente en el nivel de la estructura argumental y no en el nivel de la **ELC**, ni por supuesto en la sintaxis.